

· 작성부서	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마케팅부 해외마케팅팀		
· 담당자	팀장 : 유희욱(☎051-662-2865) 팀원 : 윤창근(☎051-662-2813)		
· 배포일	2016. 2. 12(금)	· 배포부서	홍보부 (☎ 3774-4082 ~ 4087)

※ 이 자료는 2.15(월)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한국거래소, 국내 회원사의 미국투자자 대상 선물중개 권한 획득

1 개요

- 한국거래소(이사장 최경수)는 국내 증권·선물사가 미국에서 선물영업 인가 없이도, 美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선물을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美 상품선물거래위(CFTC)*로부터 신청서 제출 7년만에 획득 (2.11일부로 효력발생)

* 美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(파생상품 중 선물, 스왑(장외 파생상품)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미국인의 해외선물 투자도 규제)

- 이로써 국내 증권·선물사는 코스피 200 선물* 등에 대해 美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됨

* 코스피 200 야간선물 포함

2 경 과

- ('09.1.23일) 한국거래소가 국내 회원사를 대신하여, 美 선물중개업자(FCM) 등록면제 등*에 대한 신청서를 CFTC 제출

* CFTC Regulation 30.10에 의거

- ('13.1월) 금융위원회가 CFTC에 정보공유 관련 의견서 발송

- ('16.2.8일) CFTC가 국내 장내 파생상품시장 회원사에 대해 美 선물중개업자 등록 등에 대한 면제 조치를 발표*

* 조치의 효력은 관보(Federal Register) 게재일(2.11) 발생

3 기대효과

□ 국내 회원사를 통한 미국 투자자의 선물시장 참여 확대

- 국내 회원사의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미국 기관투자자의 코스피 200 등 국내 선물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
- * 다수의 미국 투자자들이 국내 회원을 통한 거래에 관심을 표명해왔음

□ 파생상품시장의 국제적 위상 제고

- 동 조치로 美 규제기관이 직접적으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국내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인정하게 됨
- * CFTC는 동 조치가 금융투자업 인가, 요구자본, 투자자 자산 보호, 회원사 감리 등과 관련, 양국간 규제체계의 유사성에 기반함을 적시

□ 본소의 미국지역 파생상품 세일즈 활동에 탄력

- 동 조치에 따라 미국에서도 본소가 본격적으로 해외 세일즈 활동을 확대하여 투자수요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4 향후 계획

□ 美 적격투자자 대상 선물영업을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, 후속 행정절차* 진행 지원

- * 본소 및 회원사의 美 미국선물협회(NFA) 대상 서류 제출 등

□ 외국인의 국내 파생상품 투자관련 자국규제 완화 지속추진

- 美 증권거래위원회(SEC)와의 협의를 통해 미국인의 국내 주가지수 옵션상품 투자허용 추진
- * 옴니버스 계좌 도입(6월) 이후 SEC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

- 美 CFTC는 해외 선물상품을 美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판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선물중개업자(FCM) 등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,
- CFTC가 Regulation 30.10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외국 규제 체계가 충족할 경우, 적격인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선물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을 면제
 - 현재, 일본, 싱가포르 등 12개국 이 이미 동 면제 획득
- 한편,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(No-Action Letter, NAL)를 2009년 CFTC로부터 既 취득
 - 이는 상품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허용한 것인 반면에,
 - 이번에 획득한 FCM 등록면제 등의 조치는 국내 선물 중개업자의 미국 내 중개 및 영업행위를 허용한 것임

<美 투자자의 코스피 200 선물시장 투자방법>

방 법			NAL 취득前	NAL 취득後	
				FCM 등록 등 면제 승인前	FCM 등록 등 면제 승인後
미국 역내	FCM	자기거래 주문	×	○	
	기관 투자자	미국 FCM을 통한 주문	×	△*	
		한국 선물업자에게 직접 주문	×	×	○
미국 역외			○	○	

* 국내에서는 옴니버스계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옴니버스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만 가능, 다만 금년 옴니버스 계좌 도입 추진 중